

<서평>

『인톨로런스』 (*Intolerance*)

D. W. 그리피스 (Griffith), 1916

양재훈*

1. 들어가는 말

기독교윤리실천이 지난 2020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성인 천 명을 대상으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다.¹⁾ 이 설문조사는 한국의 개신교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이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9%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개신교는 사회봉사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종교로 (35.7%) 손꼽힘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도는 가톨릭(30.0%)이나 불교(26.2%)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18.9%)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한국 개신교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으로 남에 대한 배려와 배타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장 많이 손꼽았다(49.3%). 즉, 우리 사회는 한국의 개신교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유로서 사회적 봉사의 부족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의 부족과 배타성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신교가 사회와 얼마나 잘 소통하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 응답자의 61.1%가 개신교는 세상과 잘 소통하지 못한다고

* 협성대학교 교수, 신약학

1) <https://cemk.org/15736/>

답을 했으며, 그들은 개신교는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를 통합하는데 기여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부정적 (64.7%)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소통의 문제는 해가 갈수록 심각하다. 개신교가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2013년에는 응답자의 58.6%가 그렇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불과 3년 뒤인 2017년에는 도리어 62.1%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음으로써 3년 만에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이 정반대의 처지가 되었으며, 2020년에는 64.7%가 부정적 답변을 했다. 이는 사회 통합에 대한 개신교의 이미지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개신교가 교회 밖 세상과 소통하는가에 대한 문제 또한 2017년 56.9%가 부정적으로 답했으나, 2020년에는 61.6%로 증가하여, 해가 갈수록 부정적으로 치닫고 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개신교에 대한 종교인별 신뢰도 조사이다.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에 대해 기독교인들은 75.5%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타종교인은 64.8%가, 무종교인은 78.2%가 교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즉, 교회 밖의 사람들 중 3분의 2는 교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교회 안 사람들의 3분의 2는 교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교회가 세상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2. D. W. 그리피스 (Griffith)와 인종차별주의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배타성과 비관용성에 대해 ‘영화감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리피스 (1875-1948)는 우리에게 함께 나눠볼만한 화두를 던져 주었다. 미국 남부 켄터키 출신의 그리피스는 클로즈업(close-ups)이나 페이드아웃(fade-out) 등 다양한 새로운 영화기법을 처음으로 보여준 감독이었다. 그는 1916년에 『인톨러런스』라는 무성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는 바로 전 해에 그가 만든 『국가의 탄생』(1915)에 비해 그다지 흥행하지는 못했으

나 죽기 전에 봐야할 100대 영화라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영화를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영화이다. 이 영화는 『국가의 탄생』과 같이 3시간 정도에 이르는 길이에 대규모 무대 장치와 엄청난 수의 엑스트라, 그리고 250만 달러의 엄청난 제작비가 들어간 대작이었다.

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 그리피스가 이 영화 제작 바로 전년도에 만든 『국가의 탄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의 탄생』은 개봉 당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문제작이었다. 이 영화는 미국의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그 이면에는 백인과 흑인의 문제를 깔고 있다. 이 영화가 나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상영금지를 위한 시위를 하고 법정 다툼과 상영 방해를 하는 등, 이 영화에 대한 거부감은 당시에 상당했다. 그 이유는 이 영화가 흑인과 백인의 인종갈등을 말하면서 흑인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백인우월주의적 시각을 매우 노골적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²⁾

이 작품은 미국 남부 출신의 침례교 목사인 토마스 디슨(Thomas Dixon Jr.)의 소설 『클랜맨』(*The Clansman*)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인데, 그는 흑인에 대한 상당한 반감을 가진 백인우월주의자였다. 『국가의 탄생』은 미국 남북전쟁 이전과 이후의 시대에 벌어지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작품은 북군의 승리로 미국 내에서 흑인들의 목소리가 미국 사회에서 높아져 흑인들이 횡포를 부리고, 이에 대해 위협을 느낀 백인들이 KKK단을 결성하여 흑인들과 투쟁을 벌이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작품의 결말부에서는 전횡과 폭력을 일삼는 흑인들을 무찌르고 백인들이 승리를 거두며, 주인공인 필과 마가렛, 벤과 엘지 네 명의 백인 남자가 신혼여행을 즐기면서 평화로운 국가 건설의 환상을 본다. 그리고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 군중들 앞에 예수가 나타나서 두 팔을 벌려 그 미래를 축복해주는 것으로 이 영화는 마무리 된다.

주은우는 이러한 『국가의 탄생』종결부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탄생을 흑

2) 『국가의 탄생』과 관련한 당시의 논란과 갈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손세호, “할리우드 영화와 흑인 인종 문제 - 그리피스(D.W. Griffith)의 <국가의 탄생>을 중심으로” 『미국사 연구』 50 (2019), 99-134를 보라.

인들로 인해 더럽혀진 에덴동산이 회복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보고 있다. 즉, 흑인들이 낙원을 파괴했고 백인들이 이들을 제거함으로써 백인들로만 이루어진 회복된 낙원으로서 미국을 꿈꾸는 것이다.³⁾ 그는 이 영화가 할리우드 영화에서 “백인 지배성의 원형을 확립”하고 “할리우드 영화에 내재해 흐르는 인종차별주의와 백인지상주의의 보편적 논리를 조명”해주는 영화라고 주장한다.⁴⁾ 이런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를 표방하는 영화가 당시 미국 사회에서 큰 흥행을 일구어낸 이유에 대해 1880년대부터 1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시기에 미국에서 벌어진 백인들의 흑인 탄압과 흑백분리를 고수하고자 했던 백인들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⁵⁾

그리피스는 미국 남부 출신에다가 남북전쟁 당시 남군의 장교로 싸웠던 아버지 아래서 자라났고, 흑인이나 여성에 대해 상당히 차별적인 언행을 일삼던 사람이었기에 『국가의 탄생』은 그러한 그리피스의 모습을 매우 잘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국가의 탄생』이 보여준 극단적이고도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적인 시각으로 인해 그리피스는 영화의 흥행 못지않게 상당히 많은 공격도 받았다. 『국가의 탄생』(1915)이듬해에 그는 『인톨로런스』(1916)를 만들었는데, 어쩌면 이것은 엄청난 사회적 물의와 비난으로 인한 반대급부적 결과물일 수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인톨로런스』에서 지향하는 세계관은 그가 『국가의 탄생』에서 보여준 세계관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단적 차별주의 세계관 속에서 자라나고 살아왔던 그가 단 1년 만에 정반대의 세계관을 주장하는 『인톨로런스』와 같은 작품을 내놓는다는 것이 과연 그의 ‘회심’이나 세계관의 대전환을 보여주는 것인지 그 의심을 쉽사리 거두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물론 『인톨로런스』몇 년 뒤에 나온

3) 주은우, “미국 무성영화와 백인 국가의 탄생-국가의 탄생과 초기 미국영화 속의 인종 정치,” <미국사연구> 24 (2006), 81-116 [102-105].

4) 주은우, “미국 무성영화와 백인 국가의 탄생”, 97.

5) 황혜성, “그리피스 감독의 <국가의 탄생> 역사의 왜곡, 인종주의의 정수” <이주사학회> 2 (2010), 149-56.

작품 『흩어진 꽃잎』(1919)이 그리피스의 세계관의 전환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그리피스가 에서 주인공 루시의 아버지를 폭력적인 백인 아버지로, 그녀와 사랑에 빠진 남자를 중국인 선교사로 그려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인종차별주의적 이미지를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이 세 사람 모두 폭력과 복수와 자살로 죽음을 맞이하는 결말은 인종간의 장벽이 넘어서기 어려운 것이라는 그의 생각을 은연중에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혹은, 이후에 나온 그리피스의 작품들이 가벼운 멜로물의 주제를 담고 있는 것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음을 볼 때, 인종차별적이었던 그의 세계관의 근본적 변화라기보다는 『국가의 탄생』이 가져온 수많은 논란과 『인톨로런스』의 흥행 실패로 인한 자신의 현실적인 자각에서 나온 결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3. D. W. 그리피스(Griffith)의 『인톨러런스』 (Intolerance)

『국가의 탄생』과 『인톨로런스』사이에 드러나는 엄청난 세계관의 간극은 평등과 차별, 관용과 비관용, 포용과 배타적 태도라는 단어들의 간극만큼이나 크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를 무척 당혹스럽게 만들지만, 그리피스라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그의 개인적 과거와는 별개로 『인톨로런스』라는 작품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그 자체로 한번 생각해보만한 것이다. 이 작품은 서로 다른 네 개의 일화를 섞어서 구성한 움니버스식 작품이다. 이 영화가 다루는 네 가지 이야기는 바빌론 제국 시대에 벌어진 한 여인의 이야기,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시대의 이야기, 1572년 성 바돌로매 축일에 일어났던 위그노 학살, 그리고 그리피스가 이 작품을 만들던 당시 근대 산업시대의 경제적 상류층과 가난한 노동자들의 이야기 등이다.

이 네 가지 이야기는 시간적 순서대로 나오지 않고 이야기들이 중간에 계속 끊어져서 뒤섞여 나오기 때문에 자칫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기

도 하지만, 결국 한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따라가기가 많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 영화는 20세기 산업시대의 젠킨스 기문으로 대변되는 상류층 집단과 힘없고 배운 것 없는 가난한 노동자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러나 곧이어 복음서 시대, 위그노 학살 사건, 바빌론 제국의 멸망 이야기가 서로 뒤섞여 있어서 독자들의 내용 파악을 돕기 위해 바빌론 제국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부터 그 내용을 소개하려고 한다.

바빌론 제국 에피소드는 바빌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수이사나 (Suisana) 산에서 내려온 산골소녀는 여성을 단지 결혼시장에서 남자들에게 팔러가는 존재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에 도전하는데, 벨사살 왕은 우연한 기회에 그녀의 투쟁에 도움을 주고 그 후로 그녀는 왕을 짝사랑하게 된다. 한편,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바빌론을 함락시키기 위해 대규모 공세를 펼치지만 1차 침공은 실패로 돌아간다. 때마침 이슈타르 여신에 의해 자신이 섬기는 벨-마르둑 신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에 시기심을 갖고 있던 제사장은 바빌론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느슨해진 틈을 타서 페르시아의 고레스왕을 도와 조국을 배신하고 성문을 열어준다. 페르시아의 2차 침공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왕을 짝사랑하던 산골 소녀는 왕을 지키다가 장렬히 전사한다. 그리피스는 이 이야기를 통해 시기와 질투에 대항하여 사랑이 고군분투하다가 스러져가는 주제를 담는다.

예수 시대로 올라오면,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한 이야기와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처형 이야기를 다룬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 힘없는 대다수의 군중들의 일상을 곤고하게 만든다. 또한 이 영화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통해 남을 정죄하는 이들에게 정작 자신들이 죄악으로 가득한 위선적 존재임을 드러내시는 예수의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비관용과 배타적 정죄를 보이는 행위가 위선적인 것이라고 고발한다. 그리피스는 가나의 포도주 기적을 가리켜서 사랑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말하며, 어린아이를 용납하라는 구절을 통해서 배타적 태도와 사랑의

가치 대립을 말한다.

16세기 위그노 학살 사건의 에피소드에서는 갈색 눈을 가진 위그노파 아가씨와 그녀를 짝사랑하는 한 용병 이야기를 다룬다. 위그노 학살 사건은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카트린느 왕비를 중심으로 한 궁정의 가톨릭 당파는 정적인 위그노파를 제거하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한다. 카트린느는 “저들을 처단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외치고, 이전에 위그노파에 의해 가톨릭 파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기억해내라고 부추긴다. 결국 가톨릭파는 위그노파 신도들을 찾아다니면서 학살을 자행하고, 갈색 눈의 아가씨도 자신을 짝사랑하던 용병의 손에 찢려 죽는다. 그리고 그녀의 연인 역시 함께 죽임을 당하는 비극으로 끝난다. 바빌론의 산골 소녀 이야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에피소드 또한 시기와 질투, 배타적 태도와 인간의 이기적 욕망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여준다.

20세기 산업사회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는 켄킨스 가문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상류층이 고상한 사회 건설을 외치면서 힘없고 무식한 가난한 노동자들을 자신들의 기준과 잣대에 맞추어서 재단하면서 그들을 억누르는 내용이다. 이 상류층 사람들은 “사회재건사업 후원회”를 결성하여 사회정화 운동을 한다. 춤추고 술을 즐기는 노동자들을 천박하다고 여기면서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춤과 술을 금하는 법을 만들어 군중들을 억압한다. 이들은 고상하고 건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이에 저항하는 군중들을 향해 총을 쏘는 ‘몰상식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주인공 남녀는 이 와중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한다. 그러나 상류층 사람들의 배타적 억압은 지속되고, 결국 자식도 빼앗기고 살인 누명을 쓰고 처형당할 위기에 놓인다. 그러나 다행히 이들의 누명은 벗겨지고 다시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

이 영화의 부제는 “시대를 걸쳐 계속된 사랑의 투쟁”(Love's Struggle Throughout the Ages)이다. 이 영화는 시간적으로 고대 바빌론, 예수 시대,

16세기 유럽, 그리고 20세기 산업시대라는 시공간적 배경을 가진 이야기들을 통해 비관용이라는 주제가 시공을 떠나 인간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현상이며,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말하고 있다. 이 영화의 부제가 보여주듯이, 시공을 초월하여 인간 내면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 비관용을 넘어서기 위해 인간은 끊임없이 투쟁해왔고, 그 투쟁의 무기는 사랑이었음을 그리피스는 말한다.

영화의 결말에서 그리피스는 비관용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사랑을 노골적으로 제시한다. 그리피스는 “비관용의 불길 속에서 대포와 감옥의 철창이 만들어질 때”라는 자막을 내세우고 이어서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살생하는 장면을 그린다. 이어서 하늘에서 천군천사가 등장하고 “완전한 사랑이 영원한 사랑을 가져오리라.”라는 자막을 보여준다. 그러자 서로 죽이던 군인들이 싸움을 멈추고 푸른 초장과 꽃들로 가득한 들판, 그리고 하늘의 성도와 이 땅의 사람들이 서로 환호하는 가운데 화면 가득 십자가 모양의 빛이 밝게 빛나는 것으로 영화는 끝난다.

4. 나기는 말

인간은 왜 서로 미워하며 서로 용납하기 힘들어하는가? 앞에서 언급된 한국 기독교의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는 비록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현실 일 수도 있지만, 정작 교회를 향해 던지려고 그렇게 돌을 움켜쥔 한국의 사회 역시 자신들이 비난하는 교회의 모습을 더 많이 담고 있지 않은가? 야당과 여당, 좌파와 우파,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 보수와 진보 등 오늘날 한국 사회는 교회 안이든 밖이든 상관없이 서로 갈라져서 나와 뜻을 함께하지 않는 반대파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다. 저들을 처단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카트린느 왕비의 대사는 솔직히 말하면 오늘 우리가 늘 읊조리고 있는 대사가 아니던가? 계파를 나누고 분리하는 것은 이 영화의 네 이야기

들이 보여주듯이 시공을 초월하여 인간의 본능 속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고질병이다. 고린도 교인들도 게마파, 아볼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등장할 정도로 나뉘고 또 나뉘었던 것을 볼 때, 행여 이 고질병이 불치병은 아닐까 좌절감이 들 정도이다.

그러나 희한한 것은, 그렇게 갈라져서 싸우면서도 왜 인간은 혼자 살지 않고 사회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려고 하는가라는 것이다. 편을 갈라서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담을 높이 쌓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끈질기게 자리를 잡고 있으며, 그러한 마음이 공동체 가운데서 오늘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하다. 그러하기에 사회적으로 갈등이 극에 치달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돌아보게 된다. 비록 세상으로부터 “의사야, 네 병이나 먼저 고쳐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병뿐만 아니라 네 병도 고치려는 몸부림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닐까 싶다. 왜냐하면 어둠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교회는 이런 악한 본성에 맞서 싸우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가 자신의 빛을 꺼버리고 이 “사랑의 투쟁”을 멈추는 순간, 우리 사회는 어둠에 잠겨버릴 것이다. 그러하기에 한국 사회의 희망은 교회에 있다.